



## #02 창릉천

### 창릉천, 3,200억 규모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최종 선정

고양 창릉천이 환경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 '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'에 최종 선정되었다. 이번 사업은 수질 및 환경, 친수 시설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3,200억 원 규모의 최대 국비지원프로젝트다. 경기도 1차 심사 통과에 이어 2차 관문인 환경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고양시는 **전체 사업비의 85%(국비 50%, 경기도35%)의 예산을 지원**받게 되었다. 창릉천의 경우 구간 삼송·원흥·지축·은평뉴타운 등에 걸쳐 지속적인 지역 개발을 해온 데 반해, 친수·생태환경·수변공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.

고양특례시는 예정된 창릉 3기 신도시 건설 작업에 발맞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발 빠르게 준비했다. 창릉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고양시민의 오랜 바람과 지역 국회의원·도의원·시의원의 전방위 지원, 그리고 사업 선정을 위한 고양특례시의 추진 의지가 더해져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었다.

'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' 선정으로 **창릉천 일대의 일자리 창출,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**되며, 창릉천이 고양특례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. 고양특례시는 한강, 행주산성, 장항습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심 속 **'We 스마트 통합하천'**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계획이다.

###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창릉천, '제2의 호수공원'으로 조성될 전망

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창릉천은 통합하천사업으로 총 4개의 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. 이는 ▲휴양·치유지구, ▲소통·체험지구, ▲여가·문화지구, ▲역사·생태지구로 구성된다. 시는 이 중 여가·문화지구에 창릉천을 활용하는 **'제2의 호수공원'**이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.

## #03 광역철도망 확충

### 국기철도망

####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비 연구용역 추진

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 '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' 수립에 대비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**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**을 추진 중이다. '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'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확충 계획을 담은 것으로 철도사업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다.

고양특례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**△신분당선 일산 연장, △9호선 급행 대곡 연장, △3호선 급행 및 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확대, △고양은평선 일산 연장, △공향철도 노선 추가 역 신설, △교외선 전철화와 노선 변경, △고양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노선 발굴** 등에 대한 경제적·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,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여 국토부에 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.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용역 추진은 올해 3월 용역 수행자 선정 및 착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, 이번 용역이 2035년 인구 130만 명을 바라보는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철도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.



### GTX-A노선

#### 2024년 개통 예정...서울 도심 30분대 진입 실현

고양특례시에서는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-A노선(운정 ~ 서울역 구간)의 2024년 개통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. GTX-A는 파주 운정 ~ 화성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, 고양특례시에는 **킨텍스, 대곡, 창릉 3개소에 역이 신설될 예정**이다. GTX-A노선은 지하 40m 이하에 직선 선로를 구축해 최고 속도 180km/h로 운행할 수 있으며,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**서울 주요 지역 접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**할 수 있는 핵심 철도망으로 기대된다. 지난해 12월 GTX-A 전동차 출고식이 진행됐으며, 현재 터널 굴착 및 라이닝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.

## #04 자유로~강변북로 지하화



### '고양-양재 지하고속도로' 적격성 통과...2027년 착공 기대

고양시특례시와 서울 강남권을 잇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. '고양-양재 지하고속도로'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최근 통과됨에 따라 고양특례시의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. 이에 따라 **상승 정체를 빚는 자유로-강변북로-양재 IC 구간이 지하로 연결되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** 자유로는 고양시민의 서울 방면 하루 교통량이 약 20만 대로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로 꼽힌다.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'고양-양재 지하고속도로' 적격성 통과는 108만 고양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다. 이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, 해당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, 제3차 공고,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자유로 지하화는 고양시뿐 아니라 김포, 파주, 서울,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, **시는 자유로 이산포IC까지의 연장을 요구할 예정**이다. 아울러, **고양-양재 지하고속도로, 서울시 '경부고속도로-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', 국토교통부 '경부고속도로 지하화' 사업과 연계 방안도 검토**하고 있다.